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강설아¹ · 남혜리²

^{1,2}가톨릭상지대학교, 조교수

The Influence of Self Esteem, Career Identity, Grit on Nursing Students' Subjective Happiness

Seol Ah, Kang¹ · Hye Ri, Nam²

^{1,2}Catholic Sangji College,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lf-esteem, career identify, grit and subjective happiness level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confirm the factors of affecting the subjective happiness. **Methods :** The data collection period in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6, 2021 to October 29.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ere handed out through URL. And 168 copies were finally analyz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SPSS/WIN 21.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The variables of affecting the subjective happiness were checked the factors of self-esteem($\beta = .51, p < .001$), career identity($\beta = .15, p = .023$), grit($\beta = .23, p < .001$). The explanation power of these variables appeared to be 66.6%($F = 42.59, p < .001$). **Conclusions:** The elements of influencing the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verified self-esteem, career identity and grit. To increase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program that enhances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nd strengthens grit capability.

Key words : Self esteem, Happiness, Career identify, Gri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발달단계에 속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설정에 대한 준비와 고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1]. 간호대학생은 입학당시부터 전공이 정해져서 입학하게 되므로 대학생활의 시작 단계부터 전공 탐색 및 진로에 대한 여유 있는 고민을 할 시간이 없이 학과에 적응을 해야 하고[2],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행복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뿐만 아니라, 간호학 전공에 관련된 전문지식의 이론적 습득과 임상실습을 수행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은 이론 공부와 정해진 임상실습 등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 부담과 적응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4].

행복감이란 개인의 삶 전반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평가이며,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개개인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경험의 빈도 증가가 중요하다[5]. 주관적 행복감이란 개인의 지각된 행복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사고는 개인의 적응적 기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6]. Heimberg 등[6]은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보다 행복감을 더 높게 갖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증진시킨다면,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행복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확인된 요인으로는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진다고 하였다[1,3].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믿음이 강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그 상황에 잘 적응하며[7],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으므로 진로정체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8].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관심, 명확하고 안정된

정체성으로 개인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계획하고 긍정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방향성을 제공한다[9]. 명확한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게하고 본인의 흥미, 능력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삶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간호학을 선택하는 이유로 높은 취업률과 주위의 권유로 인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11],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흥미나 소질 능력을 고려하기보다는 대학입시와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기준으로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낮고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게 된다[12]. 자기 확신과 관련이 있는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적응과 적합한 결정을 위한 수단이 되므로 직업 선택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Hwang[14]의 연구결과에서 진로 준비 행동 및 결정, 대학전공과 관련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그것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실패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끈기와 고집 있는 성격 특성으로 열심히 도전하는 일관성 있는 열정으로 정의된다[15]. 그것은 미래 지향적 동기로서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것이 증진되면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학업성적 및 삶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16].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 높은 그것은 우울감을 낮추고, 자율성과 유능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하지만 간호대학생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과 그것에 대한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것이라는 특성은 강화되고 증진될 수 있다[15]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과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18], 전공만족도[15], 자아존중감[1,3,7,1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자기효능감[7], 스트레스[1,7,18,19], 감사성향[3] 등이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내적요인으로 진로 및 자아존중감 변수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그릿[17]의 변수를 고려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주관적 행복감의 변수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을 포함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건강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릿의 정도를 확인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확인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경북 A시 소재의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표본 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9.2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 4개 변수를 포함하여 예측변수는 총 7개로 하였다.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로 분석한 결과 153명이었고,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68부를 대상으로 하여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Rosenberg[20]가 개발한 자아존중감의 측정 도구를 Jeon[21]가 한국어로 번역한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부정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역 환산하였다. 점수분포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1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2이었다.

2) 진로정체감

Holland 등[22]이 개발한 진로정체감검사 18문항을 Kwon[23]가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보완한 14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모든 문항이 부정문항으로 채점을 역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won[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8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1이었다.

3) 그릿

Duckworth 등[15]가 개발한 그릿의 측정도구를 Lee[2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도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관심의 일관성 6문항과 목표 달성을 위해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노력의 꾸준함 6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Lee[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4) 주관적 행복감

행복감은 Hills와 Argyle[25]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 측정척도(OHQ;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Choi와 Lee[26]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내용이 반대되는 것은 역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ills와 Argyle[25]의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2$ 였고, Choi와 Lee[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4. 자료수집 절차 및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 연구자는 연구 윤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작성 등에 대한 설명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21년 9월 26부터 10월 29일까지 이루어졌다.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 및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온라인으로 제공된 연구 참여 공지기간동안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문자로 URL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와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

지 않을 것임을 설명 하였고, 응답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음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이 응답한 설문지의 177부 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16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및 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는 여성 125명(74.4%), 남성 43명(25.6%)로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연령은 21세 이하 99명(58.9%), 22세 이상 25세 이하 58명(34.5%), 26세 이상 11명(6.6%)이었고, 평균 연령은 22.18±2.75세였다. 1학년에 98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 43명(25.6%), 3학년 27명(16.1%)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64명(38.1%), 종교가 없는 경우가 104명(61.9%)이었고,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경우가 135명(80.4%)이었고, 보통 30명(17.8%), 부정적인 경우가 3명(1.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n(%)	
Sex	Female	125(74.4)	
	Male	43(25.6)	
Age(yr)	≤ 21	99(58.9)	22.18 \pm 2.75
	$22 \leq X \leq 25$	58(34.5)	
	≥ 26	11(6.6)	
Grade	First	98(58.3)	
	Second	43(25.6)	
	Third	27(16.1)	
Religion	Yes	64(38.1)	
	No	104(61.9)	
Nurse image	Positive	135(80.4)	
	Middle	30(17.8)	
	Negative	3(1.8)	
Entrance motivation	Consider aptitude	99(58.9)	
	Employment rate	35(20.8)	
	Recommendations from people around you	32(19.1)	
	According to my grades	2(1.2)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1(18.4)	
	Satisfaction	84(50.0)	
	normal	51(30.4)	
	Unsatisfactory	2(1.2)	

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에 입학한 동기로는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스스로 선택한 경우가 99명(58.9%)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률 때문에 선택한 경우가 35명(20.8%), 부모님 등 주변의 권유가 32명(19.1%), 성적에 맞추어서가 2명(1.2%)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전공만족도는 만족스럽다가 84명(50%)이었고, 보통이다 51명(30.4%), 매우 만족스럽다 31명(18.4%), 불만족스럽다 2명(1.2%)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F=4.40$, $p=.014$)와 전공만족도($F=5.6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 이미지가 보통인 경우보다 긍정적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경우보다 매우 만족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F=7.95$, $p=.001$)와 입학동기($F=5.73$, $p=.001$), 전공만족도($F=28.2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진로정체감이 높았고, 타인의 권유나 취업률 때문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경우보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스스로 선택한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한 경우보다 만족한다고 생각한 경우, 만족한 경우보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릿은 전공만족도($F=4.20$, $p=.007$)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전공만족도가 보통,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매우 만족스러운 경우 그릿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

Table 2. Self Esteem, Career Identity, Grit,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Self Esteem		Career Identity		Grit		Subjective happiness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ex	Female	31.59±2.94	0.68	2.98±0.43	0.72	3.16±0.56	-0.37	3.60±0.46	1.34
	Male	31.21±3.76	(.496)	2.92±0.51	(.473)	3.19±0.50	(.716)	3.49±0.58	(.184)
Age(yr)	≤ 21	31.20±2.99	1.08 (.343)	2.97±0.43	1.28 (.281)	3.13±0.52	1.06 (.349)	3.56±0.49	0.65 (.522)
	22≤X≤25	31.97±3.59		2.93±0.49		3.24±0.54		3.61±0.49	
	≥26	31.64±1.96		3.16±0.40		3.27±0.45		3.43±0.51	
Grade	First	31.68±3.21	0.46 (.630)	2.95±0.41	2.39 (.095)	3.19±0.52	0.18 (.840)	3.58±0.48	1.57 (.210)
	Second	31.14±3.31		2.89±0.47		3.16±0.59		3.48±0.54	
	Third	31.37±2.82		3.13±0.51		3.13±0.44		3.69±0.47	
Religion	Yes	31.27±2.93	-0.73 (.465)	2.89±0.48	-1.83 (.070)	3.07±0.56	-0.41 (.679)	3.52±0.47	-1.07 (.286)
	No	31.63±3.31		3.02±0.42		3.11±0.49		3.60±0.51	
Nurse image	Positive ^a	31.84±3.14	4.40 (.014)	3.03±0.43	7.95 (.001)	3.20±0.52	0.95 (.390)	3.65±0.47	8.99 ($<.001$)
	Middle ^b	30.20±2.95		2.69±0.45		3.08±0.56		3.25±0.51	
	Negative ^c	29.00±2.65	a>b	2.77±0.11	a>b	2.94±0.25		3.29±0.14	a>b
Entrance motivation	Consider aptitude ^a	31.83±2.99	0.92 (.433)	3.08±0.39	5.73 (.001) a>b,c	3.21±0.47	0.84 (.474)	3.65±0.43	2.58 (.055)
	Employment rate ^b	31.09±3.37		2.80±0.50		3.18±0.64		3.45±0.58	
	Recommendations from people around you ^c	30.97±3.09		2.81±0.46		3.08±0.54		3.47±0.53	
	According to my grades ^d	30.50±9.19		2.68±0.05		2.83±0.71		3.09±0.85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a	33.00±3.12	5.61 (.001) a>c	3.41±0.35	28.27 ($<.001$) a>b>c	3.38±0.52	4.20 (.007) a>b>c	3.90±0.41	12.28 ($<.001$) a>b,c
	Satisfaction ^b	31.71±3.26		3.00±0.37		3.20±0.53		3.62±0.47	
	normal ^c	30.29±2.62		2.67±0.37		2.99±0.47		3.29±0.43	
	Unsatisfactory ^d	29.50±0.71		2.36±0.40		3.54±0.53		3.43±0.17	

abcd : Scheffe' test

적 행복감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F=8.99, $p<.001$)와 전공만족도(F=12.28, $p<.001$)에서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고, 전공만족도가 만족스럽다와 보통인 경우보다 매우 만족스러운 경우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 31.49±3.17 점, 진로정체감 2.96±0.44점, 그릿 3.17±0.52점, 주관적

행복감 3.57±0.4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3. Levels of Self Esteem, Career Identity, Grit, Subjective Happiness

Variables	M±SD	Min	Max	Range
Self Esteem	31.49±3.17	22	40	10~40
Career Identity	2.96±0.44	1.64	3.93	1~4
Grit	3.17±0.52	1.75	4.58	1~5
Subjective happiness	3.57±0.49	2.0	4.76	1~5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자아존중감($r=.75, p<.001$), 진로정체감($r=.61, p<.001$), 그릿($r=.4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은 자아존중감($r=.41, p<.001$), 진로정체감($r=.4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진로정체감은 자아존중감($r=.5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입력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Dubin Watson 지수가 1.87이므로 종속변수는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차한계의 범위가 0.04~0.64로 0~1사이였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57~9.11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변수를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beta=.51, p<.001$), 진로정체감($\beta=.15, p=.023$), 그릿($\beta=.23, p<.001$)요인으로 확인되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 Esteem, Career Identity, Grit, Subjective Happiness

	Self Esteem $r(p)$	Career Identity $r(p)$	Grit $r(p)$	Subjective happiness $r(p)$
Self Esteem	1	.52 ($<.001$)	.41 ($<.001$)	.75 ($<.001$)
Career Identity		1	.44 ($<.001$)	.61 ($<.001$)
Grit			1	.48 ($<.001$)
Subjective happiness				1

Table 5. Predictors of Variance in Subjective Happiness

Variables	B	SE	β	t	p
Self Esteem	.08	.01	.51	9.03	$<.001$
Career Identity	.17	.07	.15	2.23	.023
Grit	.22	.05	.23	4.09	$<.001$
Nurse image ⁺ (positive)	-.03	.17	-.02	-.15	.882
Nurse image ⁺ (Middle)	-.17	.18	-.13	-.95	.346
Major Satisfaction [†] (very satisfied)	.06	.22	.05	.27	.784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003	.21	-.003	-.012	.990
Major Satisfaction (normal)	-.082	.21	-.076	-.385	.700
Adj. $R^2=0.666$, $F=42.59$, $p<.001$					

Reference : ⁺Negative, [†]Unsatisfactory

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6.6%로 나타났다($F = 42.59,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와 이들 변수 간에 관계를 파악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31.4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o와 Park[3]의 31.21점, Lee[1]의 31.15점과 유사한 결과이고,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19]의 29.7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지각하는 것으로[20], 간호전문직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11].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Park[19]의 결과보다 높았던 것은 임상실습을 시작하지 않은 저학년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인 3학년과 4학년보다 많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세 이하의 학생보다 26세 이상의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Jo와 Lee[8]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20세 이하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학교 및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결정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2.9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o와 Lee[8]의 2.67점, Jung 등[27]의 2.65점 보다 높았다. 진로정체감은 입학동기 및 전공에 대한 만족정도에 영향을 받는다[24]고 하였는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전공을 선택하거나, 전공교과목을 배우면서 전공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및 진로에 대한 개인적인 다양한 상황변수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간호학과에 입학한 동기가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스스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간호에 대한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보다 진로정체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사료된다[8,24,27].

간호대학생의 그릿의 정도는 3.17점으로 간호학과 전체 학년에게 연구한 Jung와 Jeong[16]의 연구결과 3.18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Park[28]의 연구에서 3.31점, Kim와 Lee[29]의 3.4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릿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이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29],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들의 경우 간호직에 대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더 유발되었기 때문에 Lee와 Park[28], Kim와 Lee[29]의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의 대상자들보다 그릿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3.57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된 Kim[5]의 4.03점보다 낮았고, Kim와 Lee[7]의 3.48점, Nam와 Lee[12]의 3.48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문항수가 서로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다. 다만, 간호대학생이 중간 이상 정도의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이 학업 및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타 학과에 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흥미를 고려하여 입학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7,12], 자신이 선택한 진로 및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주관적 행복감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보통이거나, 좋다고 생각한 경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간호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만족한다는 경우보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유의하게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행복감이 전공만족도

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고 한 Kim[5], Kim와 Lee[7]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 및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행복감은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그릿의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가 높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 및 간호학과 입학동기 등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3,12]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그릿, 진로정체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자신에 대한 존중과 진로에 대한 끈기 및 정체감은 주관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더 나아가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의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12].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행복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존중하는 것은 간호대상자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임상현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해 자아존중감 및 진로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끈기와 열정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향상에 초점을 둔 접근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에 대한 정체감 향상 및 그릿 강화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아지면 간호학과에 대한 적응과 간호교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그릿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그릿, 진로정체감 순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고, 그릿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다양하여 직접 비교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일한 도구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Rosenberg[20]가 개발한 자아존중감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사용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하기 위한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 그릿의 강화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와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Lee SH, Chung BL, Kim SH.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5;29(1):115-126. <http://dx.doi.org/10.5932/JKPHN.2015.29.1.115>
2. Yang KH, Lee JR, Park BN.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2;18(1):5-13.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05>
3. Jo GY, Park HS.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1):160-169. <https://doi.org/10.5762/KAIS.2011.12.1.160>
4. Kim SH, Park SY.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3):1557-1565.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57>
5. Kim SJ.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n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9;28(2):103-113.
<https://doi.org/10.12934/jkpmhn.2019.28.2.103>
6. Heimberg R, Acerra MC, Holstein A. Partner similarity mediates interperson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85;9(4):443-453.
7. Kim SH, Lee SH.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5;27(1):63-72
<http://dx.doi.org/10.7475/kjan.2015.27.1.63>
8. Jo H, Lee KY. A study on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and Nursing*. 2006;20(2):163-173.
9. Kim SK. The effects of family and school social capital on youths' career ident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15;1(5):23-46.
10. Cho HI, Kim YS.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future oriented goals, changes of self-identity,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identity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6;30(4):783-810.
<http://dx.doi.org/10.17286/KJEP.2016.30.4.06>
11.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205-213.
12. Nam MH, Lee MR.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10):363-374.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363>
13. Kim HS,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as curriculum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07;20(2):35-46.
14. Hwang EH.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2017. p.16-17.
15. Duckworth AL, Peterson C, Matthews MD, Kelly DR.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7;92(6):1087-1101.
<http://dx.doi.org/10.1037/0022-3514.92.6.1087>
16. Jung MR, Jeong 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6): 414-423.
<https://doi.org/10.5392/JKCA.2018.18.06.414>
17. Jin JI, Kim NC. Grit, academic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7;23(2):175-183.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2.175>
18. Kim EM, Yang YH, Lee HY, Yu M.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3):294-303.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3.294>
19. Park MS.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elf esteem on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4):395-402.
<https://doi.org/10.5762/KAIS.2018.19.4.395>
20. Rosenber,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 Press:1965.
21.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Research Institute, 1974;11(1):107-130.
 22. Holland JL, Diger DC, Power PG.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1980.
 23. Kwon. Effect of ready planned self-esteem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er identif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02. p.1-69.
 24. Lee SR. Effect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14. p. 1-164.
 25. Hills P, Argyle M.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02;33(7):1073-1082.
[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
 26. Choi YW, Lee SJ. The influ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on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9(4):887-901
 27. Jung JS, Jeong MJ, Yoo IY.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1):27-36.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28. Lee SJ, Park JY.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2):269-276.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69>
 29. Kim YS, Lee KS. 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between grit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1;27(2):144-151.
<https://doi.org/10.5977/jkasne.2021.27.2.144>